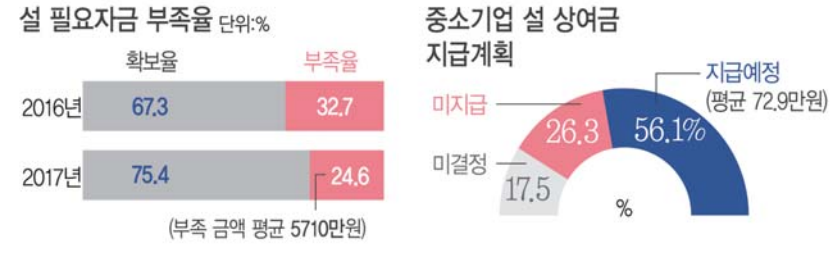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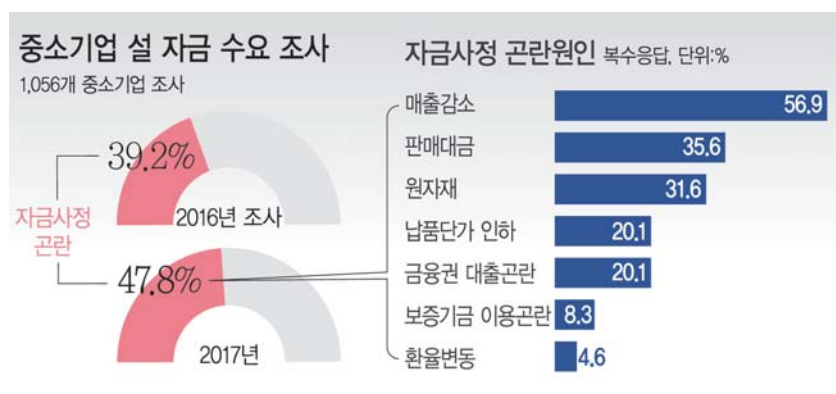


국내 중소기업 절반 “설 자금사정 곤란”

중소중앙회, 매출 감소 56.9% 1위 최다
“최근 최저임금 인상요인 일부 반영돼”

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.
중소기업중앙회는 설을 앞두고 10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, 중소기업의 47.8%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.
지난해 48.5%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2016년 39.2%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.
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'매출감소'가 56.9%로 가장 많았다. '판매대금 회수지연'(35.6%), '원자재 가격 상승'(31.6%)이 그 뒤를 이었다.
특히 '원자재 가격상승'으로 자금여력을 겪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 24.7%에서 6.9%포인트 크게 증가했다. 중소기업회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.
중소기업이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3190만원으로 지난해 2억234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 중 부족한 금액은 5710

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4.6%였다.
중기중앙회는 전년 대비 설 자금 수요는 850만원 증가했지만 부족률은 8.1%포인트 감소해 중소기업의 설 자금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전했다.
그러나 중기중앙회 측은 “도매 및 소매업”의 설 자금 부족률은 48.5%로 지난해 39.9% 대비 8.6%포인트 증가했다”면서 “매출감소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”고 분석했다.
이들러 부족할 설 자금 확보를 위해 '납품대금 조기회수'(28.4%), '결제연기'(28%)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높았다.
중기중앙회 측은 자금부족이 거래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'별다른 대책이 없다'는 중소기업도 15.7%에 달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.
한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6.0%로 지난해 37.1%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거래 시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관행'(33.0%), '신규대출 기피'(29.5%),



자료: 중소기업중앙회
중소기업중앙회는 설을 앞두고 10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'2018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'를 조사한 결과, 47.8%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.
'고금리'(27.2%) 등이 꼽혔다.
중기중앙회는 자금사정 곤란원인 1위가 '매출감소'로 나타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'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관행'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.
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'지급 계획이 있다'고 응답한 업체는 56.1%로 지난해(59.8%)와 비교하여 3.7%포인트 감소했다. '지급계획이 없다' 또는 '결정하지 못했다'고 응답한 업체는 28.9%로 지난해 26.9%에 비해 2.0%포인트 증가했다.
지급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1인당 평균 72만9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해 72만8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다.
뉴스스



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, 명절 이벤트 풍성

할인 · 선물세트 증정
한화호텔앤드리조트(대표이사 문석)가 운영하는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를 준비했다.
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대중교통(기차, 버스, 비행기)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한 고객분인 니 여수를 방문했다면 농치지 말자.
또한 BIG3 패키지 4매 현장구매 시 1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족을 위한 할인도 진행한다.
아쿠아리움 내에서는 황금 개한 돈을 증정하는 포춘퀴 이벤트와 설 선물세트를 받을 수 있는 민속놀이, '설'이 적힌 팻말을 가진 아쿠아리스트를 맞추는 '설레는 다이빙을 맞추게' 이벤트를 15일부터 18일까지 참여 가능하니 여수를 방문했다면 농치지 말자.
뉴스스

직장인 한달 용돈 평균 57만7000원

물가상승과 비슷한 수치로 늘어...10년전 比 26.8%p ↑

직장인의 월 평균 용돈이 57만 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(대표 서미영)에 따르면 10년 전 같은 조사 때 보다(45만5000원) 12만2000원이 올라 약 26% 늘었다. 당시 물가상승률이 2.8%였고 이후 매해 한 자리대 상승이 이어져 도합 20% 가량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직장인 용돈 증가 추세 역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치로 늘어났다.
인크루트는 5일 지난달 20~31일 직장인 601명을 대상으로 한 달 평균 용돈 설문 조사 결과를 2009년 12월 진행했던 동일 조사 내용과 비교해 발표했다.
직장인 용돈은 결혼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. 미혼 응답자는 평균 72만8000원을 기혼 응답자는 43만8000원을 사용했다. 미혼이 기혼보다 39% 이상 더 쓰는 셈이다.
10년 전 조사 결과는 미혼 54만8000원, 기혼 34만2000원 선이다.
성별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. 남성의 경우 한 달 평균 용돈을 53만 5000원 가량 소비한다고 답한 데 반해, 여성은 62만2000원이라고 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8만7000원을 더 지출했다. 10년 전엔 남녀가 각

“금리인하 요구권” 적극 행사하세요

8일부터 최고금리 인하
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지만 기존대출 차주도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.
금융감독원은 5일 '2017년 중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례'를 소개하며 이같이 안내했다.
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.
신용상태 개선사유는 ▲신용등급 상승 ▲소득 및 재산 증가 ▲승진 등 직위 상승 ▲우수 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식에 따라 다양하다. 연체를 하지 않고 정상 거래를 이어온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. 따라서 차주는 CR(신용평가)사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. 신용등급 조화는 4개월에 1번씩 무료로 가능하다.

티몬, 신선식품 모바일 시대...“월 평균 매출성장률 31.5%”

판매 상품수 1600여종
안정을 위해 힘썼다. 뒤이어 국민 먹거리인 삼겹살(500g, 3980원)과 목살 등 돼지고기가 10만249개 판매되며 2위를 차지했고 두부(550g, 1500원)가 5만9141개로 3위에 올랐다.
신선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요일은 수요일(15.7%)로 나타났으며 목요일 15.5%, 화요일 15.2% 순으로 뒤를 이었다.
연령별 구매자를 살펴보면 30대가 42.1%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. 40대 이상이 34.5%, 20대가 15.9%로 나타났다.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던 중장년층이 모바일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매하며 '모바일 장보기'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이충모 티몬 슈퍼마켓 매입부장은 "마트에서 구매하던 신선식품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주문하고 한파나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제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이 인정받은 결과"라며 "티몬은 필수 식재료들을 중심으로 정비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모바일장 보기를 보다 대중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

임산부 배려석,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?

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
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.
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.